

알고 계십니까? 안심하고 출산 할 수 있도록 「임부검진」이나 「출산에 드는 비용」이 적어졌습니다.

아이는 사회의 보물입니다. 출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들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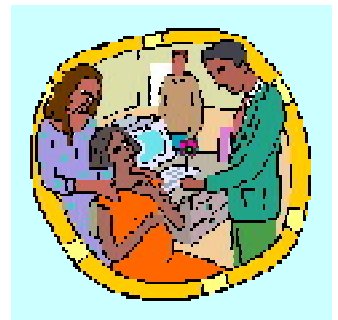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액수와 지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아플 때 보험이 없으면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비로 지불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므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회보험, 자영업이라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일가의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족도 함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은 병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산 때도 의료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되며 돈도 듭니다. 그래서 출산에 든 비용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출산 육아 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 시에 의료 기관에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최초로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돈은 우선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용자는 사전에 상당한 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출산 육아 일시금은 병원과 보험 기관이 교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방식은 출산 비용은 보험 기관으로부터 직접 병원에 지불됩니다. 임산부는 큰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이 제도에 아직 대응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대응하고 있지 않는 의료 기관은 이용자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전과 같이 우선 출산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준비해 지불한 다음에 청구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새 방식에 대응하고 있지 않고 당신이 아무래도 사전에 출산 비용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의료 기관에 상담해 봅시다. 당신이 출산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불을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보험 기관이나 사회 복지 협의회 등에 의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 10 월부터 출산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의 상한도 4 만엔 증가해 42 만엔으로 되었습니다. 지불한 금액이 42 만엔 이하라면 남은 금액은 나중에 청구하여 이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출산에 걸린 비용이 42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 임산부 검진에 대해서도 출산까지의 14 회의 검진 전부를 공비 부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www.ficcc.jp/foreign/

● 「인포메이션 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국제어린이클럽에 오세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이들의 개방일. 일본어가 모국어인 아동 학생의 일본어 지도나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정기시험의 대책 등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실력을 기를 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센터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어때요?

5월 6일 하루 늦은 단오절이었습니다

센터의 일본어 교실은 일본의 전통 행사를 통하여 일본 문화에 접하게 해 주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옛부터 사내 아이의 명절이라고 말해지는 「단오절(현재는 “어린이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거문고 연주를 시작해 신문을 접고 카부토를 만들거나 카시와모찌를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물타기도 하는 등 단시간의 이벤트였지만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7월은 매년 실시하는 「칠석마츠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향으로 연출될런지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본어교실에



오시지 않는 분도 놀러 오세요. 일본어와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수당의 신청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하셨습니다?

저번 달에 소개한 「자녀수당」 제도가 신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를 건설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수속을 하지 않은 분, 모르시는 분은 꼭 시나 마치의 관공서에서 수속을 받아 주세요. 외국적시민도 자격이 되며 아이를 모국에서 기르고 있는 분도 지불합니다.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간다 아유무

이번엔 결혼식에 참가하는 사람의 매너인 「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에 있어서 인생의 고비인 의식 등에는 빠뜨릴 수 없는 축의입니다만 외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합니다. 축의는 경사(기쁨 때)때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내 그 의식을 개최하는 사람의 수고에 대한 사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금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 결혼식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거기서 축의라고 하는 형태로 초대된 출석자가 조금씩 돈을 서로 냅니다.

축의로는 돈만은 아니고 물건을 주거나 돈과 물건의 양쪽 모두를 주거나 해도 괜찮습니다만 물건을 주면 결혼하는 사람이 비슷한 것을 몇 개 받을 수도,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축의금 봉투」라고 해 화려한 디자인이 새겨진 봉투에 돈을 넣어 줍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이나 성인식, 또 불축의라고 해 장례식이나 병문안 등엔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 돈을 줍니다.

에도시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지는 축의의 문화, 상대를 배려해 서로 지지하는 기분이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호평 카지선생님의 파소콘교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PC 초심자의 외국적시민을 위해서 매월 2회, 제 2, 제 4 목요일 1시부터 2시 30분까지 PC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PC 지도의 프로, 카지 선생님의 지도는 알기 쉽다는 대호평으로 의문 해결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PC 교실은 무료이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일본어교실이 끝난 뒤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www.ficcc.jp/living/

●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